

# 주님과 같이 섬기는 전도자로 거듭난 마가 요한

## -복음으로 여는 마가복음-

이사야 53:1-6, 마가복음 10:45

정윤돈 목사님

\* **사53:1-6**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막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6가지, 12가지 안에 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의 역사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이 자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초등학교 램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다녀왔다. 우리가 왜 건강하고 왜 호흡해야 할까? 복음사역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못 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한다. 건강을 챙기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운동이다. 우리 후대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운동을 세 가지 틀 안에서 많이 체험하도록 하고, 그 분야에서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죄, 사탄, 지옥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이 되셨다. 우리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조금 다르다. 세상은 싸우고 정복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이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다. 섬김과 희생으로 정복할 수 있다. 그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희생과 섬김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신 참왕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지만,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하는데, 빛을 발하는 방법이 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기려 하고 따지려 하면 마귀는 기뻐한다. 제가 어느 오순절 계통 교회 복지기관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해서 안내하는데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 어느 권사님이 다툼 때에 손가락질 하면서 저희 기관 사람에게 ‘저 마귀 좀 보라고 하더라. 우리도 자칫 가정과 교회

안 사람들에게 마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다. 그게 바로 희생과 섬김과 기다림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우리가 욕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순해보라고 강권하신다. 나는 못되먹었는데 구원받으면 아무리 못되먹더라도 한계가 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비교적 착하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다. 주님의 은혜다. 인간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게 쉬워져야 한다. 욕을 하는 것보다 욕을 안 하는 것,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편해져야 한다. 그게 ‘살롬’이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다. 저도 성질이 급한데 기분 나빠서 이야기했던 것은 다 나중에 후회한다. 꼭 따지고 말해야 하는데 안 하고 참은 건 나중에 돌아보면 다 왜 화났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막상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날 것에 생을 건다. 여러분은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걸기 바란다. 내가 죽으면 다 살린다. 주님이 죽으니까 다 살렸다. 쉽지는 않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종과 같이 섬기고 희생한다면 결국 승리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백 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 자세히 말씀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이기고 참고 견딜 수 없다. 우리는 성경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양보할 수 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나의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기억해야겠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인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중, 노예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왜 해?’, ‘내 일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노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순종했다.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 ‘내가 왜 인간들 때문에 뺨 맞고 침뱀을 당해야 해’하시면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 복종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보며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한다. 마가는 로마교육을 받은 부자집 아들이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 황제보다 천만 배 뛰어난 그리스도 하나님이 노예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했다. 로마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이해되는 순간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 요한인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다. 마가가 로마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마가의 부모님은 마가다락방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도 남자만 120명이니 얼마나 부자인가. 마가다락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의미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후 120명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나중에 예루살렘교회로 변한다. 미션홈을 제공했는데 교회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된 것이다. 한국의 첫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시작되어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을 안디옥교회에 인도한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였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나와 함께 갠인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가다락방 주인의 형제가 바나바였다. 온 집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과의 선교사역 초기에 문제를 일으켰다. 1차 전도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마가 요한은 복음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익한 제자가 되었다. 우리는 어떤 대상자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도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바란다.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은 10년 동안 다락방을 했다더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중간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

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테후서는 바울이 디모테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유서와 같은 편지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마가를 두고 떠나와 싸웠다. 싸우고 서로 헤어졌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거듭난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면 나중에 부족한 사람들이 유익한 자로 거듭나게 된다. 왜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을까? 마가는 초창기에 선교현장까지 따라간 사람이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동기가 있었다. 사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복음이 머리에 머리와 영혼까지 타올라 복음에 생명을 걸기까지 30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어떤 분은 복음 듣고 그날 저녁부터 응답받는 분이 계시다. 복음 받기 전에 너무 고통과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가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며 동기와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진정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1. 이렇게 사역 초기에 고만문제, 성격문제, 질병문제, 동기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포기했던 마가 요한이 어떻게 다시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1) 마가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오직 예수'라는 근본 응답을 다시 나의 복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게 응답 중 가장 큰 응답이다. 그 응답이란 자기 동기나 기준이나 배경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응답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에 평생을 일심, 전심, 지속하겠다는 결단이 내려진 것이다. 또한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도, 교회에 올 수도, 전도할 수도 없다. 나이가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연약한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상처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응답이다. 이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다. 저는 이 은혜를 받고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생각한 적이 없다. 은혜 받은 후로 저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뭔지 고민했다. 은혜는 한 번이면 된다. 그 이후부터는 교회와 성도와 후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2) 두 번째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와의 만남, 팀의 응답과 팀사역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신다. 마가 요한도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베드로는 더 크고 많은 잘못을 했던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중간에 포기한 마가 요한을 설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독에서 회복된 분들이 오히려 중독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다.

(3) 또한 마가는 마가 가정의 미션함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마가의 부모님은 가정을 미션함으로 제공하였다. 그러한 후대는 잠시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미션함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가정을 살릴 선교사로 세우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가정이 다 넘어진다. 저는 어려서 이사를 8번 다녔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마다 교회를 옮겨야 했다. 저는 항상 제 형제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 선교사였던 것이다. 마가의 가정에서는 항상 말씀포럼, 기도포럼, 전도포럼이 이루어졌다. 마가는 훗날 우리 부모님이 정말 바른 길을 가셨다고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가정과 특히 부부는 말씀포럼, 기도포럼, 전도와 선교포럼이 되어야 한다. 이때 그 가정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된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 가정에서부터 강단메시지가 포럼되어야 한다. 설교를 들으면 다 기억할 수 없다. 가정 안에서 포럼해 보자. 자녀들에게 포럼해 보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증인이 되라.

(4) 마가 요한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전문성을 통하여 회복의 응답을 받았다.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비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잘 녹취하였다. 결국 마가복음이 모든 성경의 뼈대가 되었다. 마테오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신학자들은 사복음서의 뼈대가 마가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다가 복음을 발견한 것이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하며 녹취하고 통역하다가 마가복음을 기록했

고, 누기는 의사로서 바울을 돕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하나님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을 때 행복할 수 있다.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고 재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게 나의 현상이다.

(5) 마가 요한은 로마 지교회 사역을 통해 더 위대한 전도자로 변했다.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다. 마가도 로마에서 지교회를 계속 세우며 평생 로마복음화에 쓰임 받았을 것이다. 그 응답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란다. 나의 지교회 현장, 전문성, 산업선교의 현장을 발견해야 한다.

**2. 마가를 변화시킨 언약의 말씀을 찾아보겠다. '힘내', '적극적으로 도전해' 하며 조언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제가 마음을 결단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 마기는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거듭났을까?**

(1) 첫째로 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시작이다. 예수가 구원자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는 말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결단임을 내고 시작한다. 이만큼 마가가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

(2)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다.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사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 소명이 먼저 통해야 한다.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마가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16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강조하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자유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는다. 이 세상에 악하고 독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치우해야 한다. 환경과 문화와 사람을 치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필요 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된다.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들을 치우하자.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포로가 되면 끌려 다닌다. 힘을 가져야 한다.

(3) 세 번째로 마가를 변화시킨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언제까지 은혜받고 도움받고 다락방 받을 수 없다. 아손은 복음을 3주 동안만 들었지만 지교회를 세웠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4) 마가가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가를 통하여 세상의 틀까지 바꿀 수 있도록 만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결국 이 언약은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삶의 이유로 붙잡은 것이다. 여기에 결론 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신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것이 교회의 마지막 문제라고 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은 모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 7여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10가지 비밀을 깨닫고 10가지 발판을 정리해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9가지 흐름을 살피고 62가지 평생 검순하게 훈련받으며 교회를 살리고 땅끝까지 전도캠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마가 요한처럼 오직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으로 변화되어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참된 희생과 참된 섬김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나의 시간표에 맞는 언약을 붙잡아 성취되도록 하옵소서. 넘어지고 포기하더라도 마가 요한처럼 다시 회복하고 거듭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모든 성도와 후대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